

맞춤형 ‘지역특화 청년사업’ 본격화

전주시, 공모사업 선정… 청년이음전주서 ‘청년 스펙-업 프로젝트’ 운영

전주시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주최하고 (재)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주관한 ‘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전국 기초단체가 운영하는 청년센터를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청년의 다양한 상황 및 필요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총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주시 청년센터인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 스펙-업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 스펙-업 프로젝트’는 각 분야



전주시 청년센터인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 스펙-업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별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직 청년 대상 ‘1대1 취업스킬 코칭’ △자

및 창업 희망자 대상 ‘자격증 4종 취득 과정 지원’ △1인가구 청년간 친목 활동을 통해 소통·교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소셜다인+네트워킹 활동 지원’ 등이 5개월간 진행된다.

특히 자격증 취득 과정의 경우 자격증 발급기관과 협업해 자격증 4종(스파치지도사 1급, 전문예술지도사 1급, 평생학습지도사 1급, 레고강점전문가사 등) 시험 응시와 합격자 자격증 발급 등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한 번에 지원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전주시 청년(18세부터 39세)이며, 모집 기간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정월 초과 시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구직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가상의 면접관이 실제 면접처럼 질문을 던지고, 응답 내용과 표정, 목소리, 시선 처리, 움직임 등을 파악해 장단점을 분석해주는 시스템

인 ‘AI 모의면접 시스템’을 청년이음전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면접장장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하는 등 청년들의 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이음전주 프로그램 및 정책사업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정지대 누리집’(youth.jeongju.go.kr)이나 SNS(인스타그램) ‘청년이음전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88-8673 또는 281-5319로 문의할 수 있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청년이음전주 프로그램 운영 시 청년들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한 결과, 대부분의 청년이 교육과 동시에 목표 달성과 결과를 얻는 지원 프로그램 요구사항이 많았고 시범으로 운영한 결과 점수가 초기에 마감될 만큼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 고유 음식문화 계승 지원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모집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시가 전주를 대표하는 맛집과 대(代)를 이어 손맛을 지켰은 음식 명가를 찾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8월 18일까지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를 공개 모집한다.

먼저 전주음식 명인은 향토음식 등 해당 음식을 20년 이상 조리했거나 2대 이상에 걸쳐 비법과 기능을 전수 받아 10년 이상 조리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주 향토음식은 현재 △비빔밥 △한정식 △콩나물국밥 △돌솥밥 △전주백반 △오모가리탕 △페백 음식 등 7종이 지정돼 있다.

또한 전주음식 명소는 향토음식 등을 조리하며 20년 이상 운영한 업소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를 이어 내림음식을 조리해 온 전주음식 명가의 경우 3대 이상 전수 받아 10년 이상 조리한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권희성 기자

이와 함께 시는 전주에서 동일 메뉴로 5년 이상 운영한 업소도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로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서류·조리·현장심사를 거쳐 전주를 대표할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를 최종 지정할 계획으로, 지정된 업소 등에는 △인증서 및 현판 교부 △국내외 홍보 행사 참가 △기타 대내외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문화산업과 전주음식산업팀(063-281-5184)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의 지정 확대를 통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도 전주 고유의 음식문화가 지속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한옥마을에 여름철 폭염 날릴 얼음길 조성

8월 24일까지 금·토·공휴일 총 15일 주요거점 20곳에 조성

국가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에 여름철 폭염을 날려줄 얼음길이 조성된다.

전주시는 25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 등 총 15일 동안 관광객이 붐비는 전주한옥마을의 태조로와 은행로, 향교길 등을 중심으로 얼음길 조성사업을 추진



국가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에 여름철 폭염을 날려줄 얼음길을 조성한다.

한다.

이날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한옥마

을 중심으로인 태조로를 중심으로 얼음길을 조성해 시원한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는 대형 얼음을 한옥마을을 주요거점 20곳에 각각 2개씩 비치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시원함을 선물한다.

또한 시는 얼음 상태와 안전 문제 등을 수시로 확인해 오가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얼음길 조성 외에도 물링포그와 실개천 운영 등을 통해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대한 30~40대의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23일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삶의 의미와 위로 전한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성료

전주시는 지난 24일 덕진예술회관에서 펼쳐진 ‘제219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4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배우이자 작가인 차인표 강사와 문아람 피아니스트의 감미로운 연주가 어우러진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우리에게 하루 동안 생기는 일들’이라는 주제로 차인표 작가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문아람 피아니스트의 감성적 연주가 참석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공감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시가 시민들과 함께 지



해를 나누고 소통해 온 열린시민강좌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강연과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도로 시민들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냈다.

/권희성 기자

전주만성초 4학년 학생들, 알뜰시장 운영 수익금 기부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주민센터는 지난 24일 관내에 있는 전주만성초등학교(교장 김은정) 4학년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32만490원을 기부했다.

3년째 기부 중인 성금은 전주만성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교내에서 진행한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알뜰시장을 운영하여 학생들 개인의 수익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마련했다.

행사를 통해 아이들은 경제 교리를 이해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남은 수익금을 기부하여 세계 시민교육의 이념



적 가치인 착한 소비를 실천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4학년 학생과 학생들은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숙달처럼 작은 금액들이 모여 혁신동 관내에 대한 학교 등폭금이 부족한 분들, 치료가 필요한 노인분들, 자라나는 꿈나무인 유치원생들을 위해 사용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인구감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대한 30~40대의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23일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30~40대 인구의 전주시 정착을 위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고, 타 지자체 조례와 국내·외 정책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한 정착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회는 새로 출범하는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과 정부의 인구정책에 맞춰 국내·외 사례 연구 및 문헌 조사, 새로운 정책 및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 30~40대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

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동현 전주인구정책연구회장은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수요가 반영된 맞춤형 정책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인구정책연구회는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위기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 연구단체다. 회장에 김동현 의원을 비롯해 김정명(감사)·김세혁(사무국장)·남관우·김원주·양영환·김성규·장재희·채영병·이보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적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